



## 여의도 3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풀렸다

905만㎡ 해제 재산권 행사 가능

경기 810만㎡로 전국 총면적 63% 차지

통제보호구역 369만㎡ 제한보호구역으로

3426만㎡는 지자체에 건축·개발 허가권

경기도와 강원도 등 905만㎡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3

배 규모인 접경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274만3000여평을 해제했다. 해제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 대인 경기·강원·인천이 전체 해제 비율의 99.4 %를 차지한다. 서울도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3466㎡가 해제됐다.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0만㎡, 성남 증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5.4㎢가 완화되거나 해제됐다.

휴전선 인근 통제보호구역 1.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 4.3㎢를 협의위탁구역으로 각각 완화됐다. 또 원주시 태정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0.09㎢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철원읍 중리·관전리,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등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는 상습 수해로 인한 거주지 조성을 위해 이번에 규제가 완화됐다.

제한보호구역으로 둑여 군부대로부터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철원군 동송읍 강흥리, 갈말읍 상사리와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 동면 임달리·팔령리 등은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돼 앞으로 행정기관 허가를 받으면 된다.

양구군 양구읍 비행장 주변은 고도 제한이 완화돼 지역개발 기반이 마련됐다. 철원군 서면 와수리 일대 1.2㎢는 기존 8㎡로 지정돼 있던 고도 제한을 45㎡로 완화해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또 당진은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000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8만㎡(1000만36평)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지역이 포함됐다.

당진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가 맡게 된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해당 구역은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구군, 양양군 등에 있으며 총면적은 3428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1.8배에 달한다.

신규 군사보호구역도 설정됐다.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기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육상·해상) 일대와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해상) 일대 등이 포함됐다.

이신우기자 leew@jeonmae.co.kr



“할아버지 성묘 왔어요” 설 연휴를 2주 기량 앞둔 16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에서 한 어린이가 할아버지 묘에 놀을 꽃을 들고 있다. 부산시는 설 연휴기간 영락공원 및 기장군 추모공원의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을 임시 폐쇄한다. 대신 22~23일, 내달 5~6일 등 4일 동안 봉안당 일일 추모객 총량 사전 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연합뉴스/ 손현주기자

## 경북도 ‘수요자 중심 복지’로 대전환

경북도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새로운 복지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라는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하고 핵심시책 17개를 정해 추진할 구상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자가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는 복지플래너 ‘행복설계사’를 전국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근무 중 다쳐도 치료받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심급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협력 밸류추진단을 운영해 시각장애인에 일정시간 내에 찾는 복지관이다. 이어 경로당은 기존의 단순 여가 공간에서 체계적 서비스 공간인 문화, 교육, 복지 중심의 거점 공간으로 전환한다.

‘부모님으로 모시는 어르신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전문적 퇴직자를 활용해 노·노 케어 서비스 지원,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 포인트인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활용 있는 노후생활을 강화하는 ‘어르신 봉사 포인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마음까지 챙기는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건강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 17개 추진

취약계층 및 출신형 복지플래너 운영

전국 최초 공공먹거리 안전시스템 구축

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사법시업으로 스마트 허브케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스마트 환경(와이파이·무선인터넷)을 구축해 혼자 지내는 재가 장애인과 시설 퇴소 장애인 등의 돌봄과 소통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 컨텐츠 제공, 안부 확인, 소그룹 활동 등 자립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로움을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지역 차원의 아젠다로 다뤄 ‘심리적 저자계층을 쟁가는 외로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외로움 대책팀을 신설하고 협회 외로움 예방 대책 조례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로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방향 및 신규 사업 발굴, 민간단체와의 연계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경북형 외로움지수를 개발해 도민의 외로움을 모니터링하고 찾아가는 외로움 예방 서비스 확대와 생애주기별 외

로움 예방 사업을 통해 심리적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할 구상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기부 운동 확산 및 미타운스와 연계한 대학체널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관계망을 형성해 외로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은 민간 협약을 통한 관현책임을 부여하는 민간주도 사회협약형 방역을 제안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1~2월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에 대비해 24시간 현장 대응팀을 운영하고 재택치료 확대 및 심리·신체활동 지원으로 의료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 영양취약계층의 급식안전 관리 위한 경북형 공공먹거리 안전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식품영양·안전 관리, 급식 품질기준 시스템 운영 등 경북형 공공식·안전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경북도 공급식 관리지원센터 모델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dy@jeonmae.co.kr

## 올해 1인당 국가채무 2천만원 돌파 전망

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넘어서 전망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낙관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건강 관리의 시작**

**건강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위원회

문의 : 032-890-8700

文정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코로나·대선에 추가 추경 가능성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000만원 돌파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3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 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위기 영향이 크다. 백신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크게 늘었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중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

**SingGreen Cheongdo**

**청도 반시**

“전국 유일 씨 없는 감”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 054-370-6114



# 李 “금강산 재개·DMZ 관광 추진…남북 철도·도로 연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비무장지대(DMZ) 관광 추진,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강원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대한 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며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메카로 대내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평화경제특구 구역을 지정하고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해 남북경제협력, 공동 지원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상황에 좌지우지되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단계를 명확히 나눠 흘림 없이 해나간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일산~금강산~고성~강릉에 이르는 등에 국제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고 세계인이 깊은 관심을 가진 DMZ 평화생태관광을 추진하겠다”며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 치적 분야 교류부터 시작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라며 “2008년 이후 닫혀버린 금강산 관광의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도의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

로망을 확충해 국도교량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며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 강원도가 북방경제 진출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부선철도, 흥천~용문선 철도 등 철도노선과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제전에서 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 영월~대백~삼척 고속도로,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연결 등 계획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의 비아이·헬스 융복합 벨트를 조성하겠다”며 정밀의료 데이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  
남북경제협력·공동 지원개발 추진

친기업·친시장 행보 가속 외연확장 박차  
30%대 박스권 돌파…경제대통령 ‘경공법’ 돌파

이터산업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한 바이오·의료 분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과 중화항제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어 “수소·풍력·비아이 등 인프라 확대로 강원도를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동해 평화발전과 플라자 활용 그린수소 생산 및 연구단지 조성, 액화수소 산업 추진 등

을 제시했다. 탄광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의 폐광 및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자립 기반 마련과 해양·신안·내륙 관광 육성 방안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한편 이 후보는 ‘30%대 경선’에 간접 지지율 돌파를 위해 전기업·친시장 행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사례 들어 원전하게나마 상승하던 지지율이 조정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접차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표류하던 중도층 표심 일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민주당 선대위가 비자 경제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 관계자는 16일 “추가 힘세기가 이어져 30%대 초반까지 밀리는 조사결과가 계속 나올 경우 빨간 불이 켜지게 되는 걸”이라며 “전략 기초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일단은 기준 전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순께 조정 국면을 거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이미 1월 전략에 비중 있게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새해 들어 경제 행보에 더욱 박차를 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판세 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주에도 친기업·친시장 행보를 이어가며 ‘경제 대통령’ 부각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 후보는 중견 기업들과 만나 지난 12일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3.0 프로젝트’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학기술·문화



통일전망대서 평화경제정책 발표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를 방문, 평화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송봉근

더보기 경제적 쟁점과 정책 능력을 비교우위에  
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지만 ‘면 대 면’ 토론에  
서는 여론 반향이 대단히 전개될 수도 있다고 경  
계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토론은 우리가 질할 것

이라는 인식이 많아 국민 기대치가 더 높다. 잘  
해야 본전일 수 있다”며 “후보가 자신의 정책과 콘  
텐츠 중심으로 겸손하게 임하는 방식의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w@jeonmae.co.kr

## 방역패스, 이번엔 지역 형평성 논란

법원, 서울서만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타지역은 그대로  
엇갈린 조치에 혼란 기증…오늘 정부 방역대책 발표 주목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불거져나왔다.

15종 시설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인정하면 서도 서울시에 한정해 그 효력을 짓자면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당부 17일부터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 경우 타 시도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상

점·마트·백화점을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면 방역패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를 정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보고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루 뒤인 17일부터는 이를 사실상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타 시도에서 반발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어렵게 생각한다”면서도 마트·백화점 외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 것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의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형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의성을 인정하지만, 서울 시내 백화점·대형마트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축면이 있고, 12~18세 대상 적용도 공의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 대변인은

작년 거래량 6만8천여건으로 2011년 통계 이래 가장 많아  
월세 비중도 월·연간 모두 최고…“월세전환 시계 빨라진다”

지난해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디주택자들의 세입자 조세 부담 전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울의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서울의 월세는 작년 한 해 10% 넘게 올랐다.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월세가 낮 아파트 약세는 11월까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총 6만8736건이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월세 거래량은 2019년 다시 5년마다 올랐고 2020년 5년장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또 최다치를 경신했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보대로 짐작하는데 최근 월세 거래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암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월세가 낮 거래의 암대차 계약 비중은 37.2%로 2019년 28.1%, 2020년 31.1%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암대차 계약 중 월세가 낮아졌다. 이처럼 월세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암대차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은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암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에 물이 된다. 나아가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로 전세자금 대출 까지 막히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가 더욱 요원한 상황이 된 것도 월세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에서 평균 아파트값이 가장 낮아 중산층과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천구의 경우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2020년 556건에서 지난해 2117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금천은 지난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월세 비중(56.6%)이 전세 비중(43.4%)보다 높았다.

작년 해 12월 한 달만 보면 서울 월세 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63.1%)로, 암대차 계약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월세 긴 거래였다. 월세 수요 증가가 저수으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고통은 기승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월세는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124만5000원을 기록해 2020년 12월(112만7000원) 대비 10.5% 올랐다.

특히 같은 기간 강남권(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 월세(130만4000원)가 5.8% 오를 때 강북권(한강 이북 14개구) 아파트 월세(11만3000원)는 18.1%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강남권 상승률의 3배가 넘는 셈이다. 금천구 독신동 폭신증정화이즈빌 전용면적 84.87㎡ 7층은 지난해 18일 보증금 29·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다. 같은 해 4월 11일 같은 면적 11층이 같은 액수의 보증금에 월세 5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가격이 두 배로 뛴 것이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22년 1월 설맞이 파주페이 10% 특별할인 혜택  
가계부담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올리고  
파주 Pay 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 1. 1.(토) ~ 1. 31.(월)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농·축협에서 충전  
(단, 50만원 한도내, 예산소진시 까지)



## 파주Pay(파주페이)란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사용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가 발행하는 카드형 대안화폐

문 의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31-940-4522, -4577 | 코나아이(주) 고객센터 1899-7997

다자대결尹 41.4% 李 36.2%…安, 5.5%p 하락한 9.6%

尹 6.2%p↑·李 1.4%p↓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2당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전주에 비해 이 후보는 소폭 내리고, 윤 후보는 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주의 15% 대비서 9%대로 떨어지며 주춤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 지지를은 전주 대비 6.2%포인트 상승한 41.4%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1.4%포인트 하락한 36.2%를 나타냈다. 두 후보의 지지를 격차는 오차범위(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인 5.2%포인트다.

전주(1.7~8%) 조사에서는 이 후보 37.6%, 윤 후보 35.2%를 기록했다.

KSOI 조사에서 윤 후보가 40%를 웃든 것은 지난해 12월 10~11일 조사(42.0%) 이후 5주 만에 처음이다. 최근 상승세였던 국민의당 안



※ 출처: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 조사기간: 1월 14~15일 | 조사방법: 전화면접(남녀 1000명) | 오차범위 5% 신뢰수준 ±3.1%

월 대선은 차기 대선후보는 지지율이 전주(15.1%)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9.6%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6%,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후보는 0.9%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론' (현 정권 국정운영 실패를 위해 이전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으로 보는 이들은 50.3%, '정권 재창출론' (인정적 국정운영과 연속성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으로 보는 응답자는 36.5%였다.

조사 방식은 무선 휴대전화 자동응답 전화조사(ARS) 100%로 응답률은 88.4%. 자세한 내용은 종합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 安, 마의 지지율 15% 넘어 20% 고지 표밭같이 박차

### 아권 내 골든크로스 지역 순차 밀착마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지율 20%' 고지를 목표로 표밭같이 박차를 기하고 있다.

안 후보는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7%를 얻어 이번 대선 정국에서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5.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종합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불과 한 달 전 같은 기간 조사에서 5%에 머물던 것과 비교하면 꼭발적인 상승세다.

당 안팎에서 '마의 지지율'로 꼽히는 15%를 넘어 조만간 지지를 20%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지율 20%'는 안 후보에게 특별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대선에서 안 후보의 득표율 21.41% (699만 842표)를 회복하는 한편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아권 내 보수표심의 이동을 꼬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갖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아권 내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만한 지역을 순차적으로 밀착마크 하며 2012년 처음 정치참여를 선언했을 당시 불았던 '인풍 어개인'을 폐기하는 전략이다.

이율리 정책 감수성이 높은 2020 세대를 겨냥한 정책 행보에도 조절을 맞출 계획이다.

지지율 상승에 비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외의 단일화로도 힘을 받는 상황이다. 절반에 유효하는 정권교체 여론에 부응되려면 아권 후보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서는다.

그러나 '질수는 없다'는 게 안 후보의 입장이다. 거의 매번 반복되는 단일화 관련 질문에 안 후보는 '단일화는 없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고 있다.

또 정책 행보를 이야기며 연금개혁 등 미래 이슈를 선점한다면 자력으로 승신이 있다는 판단이다.

서정의기자 seo@jeonmae.co.kr

'다시 짓는 서울' 공약 발표  
도심 철도·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지하화

신분당선 서울 서북부 거쳐 고양까지 연장  
독서실·도서관 등 방역 패스 일부 폐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6일 대통령이 되면 5년 임기 내에 서울에만 신규주택 40만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호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수도권 도심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은 서울 서북부 지역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시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시 짓는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유통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한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 임기 내 서울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공동주택 청밀화 전진단 면제, 재건축조기화의 원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시행에 따른 토지주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대상지 를 확장하고 신속하고 통일된 인하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세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호를 공공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첫 집을 경우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기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가변기설이 원활하고 개발 어려운 지역 역시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역세권 복합기밀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총수 재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 까지 저준으로 인해하는 등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도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 지상권 개발이익이 18조 1400억 원이고,

## 尹 “서울 주택 40만호·역세권 10만호 공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시에서 열린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서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후보

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신분당선을 서울 서북부를 관통해 경기 고양시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도심 철도는 지역의 단절, 주변 지역의 낙후, 혁신 악화의 원인으로, 지하화는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다”며 “미래형 도시로 재생조성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지하화 공약 대상 범위로 경부선·서울역 구간(32.4km·19개역 포함), 경인선의 구로~도원역 구간(22.8km·19개역), 경원선의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11개역)이다.

윤 후보는 “지하화로 생기는 토지에는 주거와 업무공간, 주민 편의시설, 녹지 생태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도시 공간이 새롭게 개발되면 20만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으로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재원 5조 7000억 원 기방은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총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은 양재~한남IC 구간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기존 노면과 완충 녹지 등을 합쳐 여의도공원 면적의 약 3배인 60만㎡의 공원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예산 사업비 3조 3000억 원은 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토지와 부수금으로 예상된다.

이율리 현재 신사역~용산역까지 계획된 신분

당선 서울지역 연장사업을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고 은평뉴타운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으로 “서울 종로, 은평, 경기 고양 등 서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과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심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패스 적용 및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구상도 함께 밝혔다.

실내 공간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로 구분해 방역 패스 적용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도서관, 스테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종교시설 등이 마스크 상시 적용과 대화 금지 조건을 민족하면 방역 패스 폐지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마스크 상시착용이 어려운 입장의 경우, 활기찬 구축 요건 충족 시 ‘우수 활기형소’로 지정하고, 한정 4인당 1인의 시설 입장 기준을 4인당 2인으로 완화하면서 예상시간 2시간 연장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 유호시설 등 유형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이 해당된다. 서정의기자 seo@jeonmae.co.kr

## 與野 ‘1월 추경’ 앞두고 살바싸움

與, 공식 선거운동전 ‘속전속결’ 처리 방침  
野 ‘매표추경’ 비판 속 공약 반영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월 추경’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살비싸움에 놓았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하면 압축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너무 크기에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속전속결 심사’의 논리다.

내달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민족, 추경 심사에 진입할 여력이 없다는 것도 이유다.

선거운동 전 추경이 처리되며 ‘표심’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계산도 읽힌다. 다만 정부의 추경 총액이 14조 원에 그친 점은 고민거리다. 이제 명

대선 후보가 요구하는 ‘넓고 두터운’ 지원을 감당하기에는 턱부족이다.

민주당은 추경인의 심사·처리를 속전속결 전 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각 주간 협약”을 언급한 점에 방침을 짜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16일 통화에서 “이당 대선후보가 주경 필요성을 밝혔는데 당시 이엇자리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심사에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달 3일 입사국회를 열고

같은 달 14일 전후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일정을 세워놓았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하면 압축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너무 크기에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속전속결 심사’의 논리다.

내달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민족, 추경 심사에 진입할 여력이 없다는 것도 이유다.

선거운동 전 추경이 처리되며 ‘표심’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계산도 읽힌다. 다만 정부의 추경 총액이 14조 원에 그친 점은 고민거리다. 이제 명

대선 후보가 요구하는 ‘넓고 두터운’ 지원을 감당하기에는 턱부족이다.

민주당은 추경인의 심사·처리를 속전속결 전 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각 주간 협약”을 언급한 점에 방침을 짜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16일 통화에서 “이당 대선후보가 주경 필요성을 밝혔는데 당시 이엇자리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심사에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달 3일 입사국회를 열고

시정 등에서 여야 의원들과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 지지 않고 광장을 주고받았을 민족 윤 후보가 입기 응변과 안면에 밀리지 않는다는 게 신내분분 내 자체 평가다.

여기 정책 관련 정확한 숫자나 근거 데이터 등을 뒷받침해 수권 능력을 보이는 게 윤 후보 측의 일자적인 토론 목표다.

윤 후보 역시 토론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측근들에게 “검사 시절 김연장 최고 변호사들과도 법정 토론에서 밀리지 않고 이겼는데 대선 후보 토론에

서도 자신 있다. 알마든지 토론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

다. 그러나 역대 대선 사례를 되짚어보면 TV토론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TV토론은 안전과 정체 능력, 호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한 ‘종합예술’이라는 말도 나온다. 토론의 성과를 단순히 안면이나 공격력 등으로 쉽게 계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정의기자 seo@jeonmae.co.kr

## 李·尹 ‘설연휴 이전 TV토론’ 대선판 흔들 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설연휴 이전 TV토론’에 합의하면서 이번 대선판을 흔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시기상 대선판에서 대선 후보가 주경에 대처하는 것은 예상이다. 예상과는 달리 대선 후보는 흔들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모든 현안을 토론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한 가운데 양측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이카페 스건으로 꼽히는 ‘대장동 게이트’와 ‘배우자 리스크’ 등에서 공수 포지션을 바꿔가며 칭과 방대를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 파워인터뷰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 “‘사람중심, 행복여주’ 함께 만들어 나갈 것”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추진 방향과 과금 효과 등을 들어봤다. 이 시장은 “임인년 겸은 호랑이의 기상을 12만 여주시민의 뜻으로 밟들어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시의 연간 예산이 결산 기준으로 1조원이 훌쩍 넘었다.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사회의 고른 발전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이런 무게감을 항상 잊지 않고 있다. 시의 슬로건 ‘사람중심, 행복여주’는 시 공무원들의 비전이기도 하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버티볼 수 있는 대관 세월의 자세만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에게 행정에 대한 비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 비전이 업무 추진력의 원천이 되기를 항상 당부하고 있다.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많은 제 역을 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책과는 별개로 시민의 보상 대책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예산 33억 원을 편성해 지역 회폐를 발행했으며 경기도 공공매달 플랫폼 ‘배달특급’ 서비스를 도입해 골목상권 배달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1년 한해 은행대출이 어려운 327명의 소상공인에게 9억 2500만 원의 운영자금을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인회에 총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신속PCR검사를 활용한 인상5일장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고 한글시장 스마트 시범장구 구축 사업과 세종시장 혁신형 마케팅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중이다.

● 코로나19 현장PCR검사가 1년을 넘겼다.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는 듯 한데 현장PCR검사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시는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현장PCR검사를 실시해 왔다. 코로나19 현장PCR 검사를 실시 운영해 오면서 여러 기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우선 위드 코로나 이후로만 봐도 인근 시·군에 비해 확진자 수가 가장 적었다. 시의 등록 공장 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46개가 더 늘었지만 집단 감염으로 문 닫은 공장은 단 한곳도 없었다. 시 고용·노동지표는 전국 최상위권이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은 “임인년 겸은 호랑이의 기상을 12만 여주시민의 뜻으로 밟들어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제공>

“

지역화폐 발행·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특례보증 지원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코로나19 현장PCR검사 속도 추진 … 출렁다리 올해 완공시 관광산업 발전 역할 기대 GTX-A·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 관찰 최선 … 100회 맞은 ‘동네 한바퀴’ 소통 주력

며 2021년 고용률 상승률은 경기도 1위를 달성했다. 이 수치들은 신속한 견사로 되찾은 안전한 일상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현장PCR검사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코로나의 위험으로 여주시민들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포기한다면 차치단체장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는 이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때까지 나아가 코로나 감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장PCR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여주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출렁다리가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어느 정도의 관광 효과를 예측하고 있는지

국가 하천인 한강에 최초로 세워지는 이 출렁다리는 길이가 총 515m로 국내 출렁다리 중에는 두 번째로 길다.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관광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학적 예측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가 완공 후 첫 해인 2018년에 185만 명, 2020년에 201만 명이 방문했다는 통계를 참고하면 그보다 접근성이 좋고 규모가 큰 여주 출렁다리는 적어도 그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 GTX-A 광주~이천~여주~원주 노선 연결 가능성과 기존 경강선의 원주 연결 시 사회적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GTX 유치가 실현되면 경강선을 통해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밸류이 되고 현 정부가 역점으로 내세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의 기폭제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는 1을 웃도는 B/C 1.19가 나왔고 역당 수요 예측 조사에 따르면 1일 승차 기준 1만 3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시는 GTX-A와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를 관찰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옛 경기실크 부지와 제일시장 부지 등 이동 일대의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12월 16일 여주의 구도심인 중앙동1지역(여흥동, 히동, 청동 일대 204,944㎡)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에 선정돼 국도비 18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은 미증불사업으로 그간 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제일시장 부지에 LH 행복주택과 상생플랫폼, 커뮤니티센터, 행정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등을 복합 조성하는 거점개발사업과 중앙로 문화의 거리, 어(주)행(복)스테이션 조성, 청소년 청작센터 건립 등의 하드웨어 사업, 그리고 중앙로 상권활성화 사업, 여주 로컬 생태계 육성 등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경기실크부지는 특색 있는 구조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최적의 장소라는 전문가의 평과 함께 문화관광체육부 유튜브 공간 문화재생 기본구상 연구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옛 경기실크 공장부지의 문화적 활용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민위원회로부터 학습과 토의라는 숙의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나온 상태다. 시는 이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관광, 문화기능이 결합된 상권 활성화 사업과 거점시설 조성으로 주민이 머무르고 여행객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중심지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여주초등학교 이전 문제는

여주초등학교가 이전하면 그 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확장하는 계획을 밟았지만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기에 여주시청 신청사 주민을 위해서도 여주초교 이전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여주초교 이전 문제는 현재, 교육부 신하 지방 교육재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여주초교 신설대체이전 타당성조사는 올해 1~2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4월 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통해 이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 진행 중인 ‘동네 한바퀴’로 소통하는 주민들과의 대화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얻고 있는데

마을 현장 방문 행사가 지난 연말에 100회를 넘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이나 시급한 현인이 있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지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의 제한 때문에 조만간 잠정 중단한다. 시에는 12개 읍면동에 310개 마을이 있다. 그동안 100여 곳의 마을을 방문하면서 받은 건의 시행만 300여 건에 이른다. 좀 더 일찍 현장 을 찾아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다.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 여주 뉴스 브리핑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달 3일까지

남부용 고지서 4만9000건 일괄 발송

경기 여주시는 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 및 비영업용 승용차동차(체납3회미만)에 대한 남부용 고지서 4만9000건에 대해 일괄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연납 희망자는 인터넷·모바일 웹엑스, 세정과 전화(031-887-2103)를 통해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일계좌, 웹엑스, ARS(031-887-38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지방세 자동차이체가 신청해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막소활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연납 사실이 자차체간 통보되므로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 여주여강로타리클럽, 사랑의 집수리 봉사

##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장판 등 설치

경기 여주시 북내면은 최근 여주 여강로타리클럽과 연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씽크대를 설치하는 등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여강로타리클럽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봉사활동으로 우편이 심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가정에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주영표 회장은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재선 북내면장은 “앞으로도 북내면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여강로타리클럽은 1999년에 창립해 30년간 각종 사회봉사와 후원에 늘 앞장서 왔으며 각종 봉사활동을 추진해 소외계층을 위해 현신 봉사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 남동구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열어가겠습니다.

\*호시우행 : 놀은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행동은 소처럼 끈기있고 착실하게 하는 모습



풍요로운 일상을 회복하고, 수준 높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3월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충족 요건 및 타구 중복지금 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확정된 대상자에게 3월 초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한 예술활동증명서 보유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 120% 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특히 1·2차 지원 당시에는 선정 인원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했다면, 이번에는 선정된 예술인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0만 원 정액 지급한다. 또 1·2차 수급한 예술인도 다시 받을 수 있다.

서정의 기자 seo@jeonmae.co.kr

## 구정 이모저모

##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기금 응자 지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경수)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움직여준다고 최근 밝혔다.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등록을 펼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응자금액은 업체당 1억 5000만원 이내이다. 2022년 한시적으로 금리 0.8%,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다만 ▲담배, 주류 등 도매·소매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기타 시설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은 응자가 제한된다.

제1차 응자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며,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응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 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원(2018년~2021년)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응자금 사용실태 확인서 등이다.

## '청년취업연계프로그램' 사업 운영자 공모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28일까지 '청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사업 운영자 공모를 통해 지역 청년의 구직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취업활동 지원에 나선다.

공모대상은 청년을 대상으로 창직·창업·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1천만 원 이상)이 있는 법인, 개인사업자 등을 비롯해 양질의 훈련 프로그램을 보유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 운영자는 협약을 통해 최대 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공모기간은 17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며, 공모서류는 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jhi127@yangchoen.go.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차 심사와 함께 2월 중 사업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체현일)가 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영등포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신규 입주할 1개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 대상은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 5년 이내의 성장기 단계에 있는 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어야 한다.

입주 기관은 28.22m<sup>2</sup>의 사무실을 2년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입대료는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대부요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면적에 비례해 세제공과금을 부담하게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영등포구 청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4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구청 사회적경제과에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kang521@ydp.go.kr)로 접수하면 된다.

##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인 1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2022년 1월 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1종 6만 7500원, 2종 5만 4000원, 3종 4만 5000원, 4종 2만 7000원, 5종 1만 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구는 올해 각종 면허 5만 7000여 건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20억 5700여 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2%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02-3306-5244)로 문의하면 된다.

## 은평구 '기초생활보장 강화' 적극 추진

## 올해 생계급여 지급액 5.02% 인상…대상 가구 선정시 소득인정액도 상향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경미)는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나 불평등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제도에 대한 접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며 누구나 상담 가능하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로,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보증급여 방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이거나 9억 원 이상 고재산의 경우는 제외된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지급액은 5.02% 인상됐다. 1월부터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소득인정액이 상향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146만 2887원에서 올해 153만 6324원으로 늘어난다.

구는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중 구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다. 제도권 외 취약계층의 적극적 구제와 타 복지제도 및 서비스 연계를 제공할 방침이다.

임형찬 기자 limhc@jeonmae.co.kr

## 관악구, 난곡로15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완료

## 옹벽 시공·태양광 조명 설치·미끄럼 방지 포장·담장 정비 등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90.5% '만족'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최근 지난 3년간 추진한 난곡로15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지역은 350년간 마을을 지켜온 보호수 느티나무와 도로에 입접한 녹지 등이 있었지만 높은 도로 경사도와舗은 골목 등으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구는 2019년 서울시 골목길재생사업

업에 선정된 뒤 지역 특색을 살리며 골목에 활터를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먼저 중앙길에 조성된 커다란 응벽이 눈길을 끈다.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일시로 설치했던 벽돌과 쌓아막을 제거해 위험 응벽구간을 정비하고 도로선정비, 태양광 조명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기준의 낮은 도로는 전면 미끄럼 방지 포장했고 마을 안길에는 투수 블럭 포장과 담장을 개선했다. 대문 정비를 통해 골목길도 생활공간의 일부로 조성했다. 또한 사업 계획단계부터 골목길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을 모아 마을 곳곳 화단과 주차구획 정비, 전기배전함 미관 개선 등을 실시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했고 그 결과 90.5%가 만족하다고 답변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신년인사회·직원 임명장수여식.

## 성북지역자활센터가 함께 이룬 공무원의 꿈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문 두드린 청년…서울시 공무원 임용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성북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공무원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박준필(가명) 청년이 그 주인공. 준필씨와 성북지역자활센터는 2021년 4월, 보호종료아동으로 자활참여대상이 되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인연을 맺었다.

성북지역자활센터는 계획에 따라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면접 이미지 메이킹 교육, 직무 교육, 의사소통 교육 및 소양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준필씨가 공무원 시험 준비

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합격 이후에는 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면접 등 역량 강화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박준필(가명) 청년이 그 주인공. 준필씨와 성북지역자활센터는 2021년 4월, 보호종료아동으로 자활참여대상이 되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인연을 맺었다.

성북지역자활센터는 1997년 7월 1일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사업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 마포구,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홈세트' 지원 완료

## 유동균 구청장 "여성 1인 가구에 든든한 안심 울타리 될 수 있도록 최선"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포경찰서, 마포구 가족센터와 연계해 여성 1인 가구 136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세트' 지원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동균 구청장은 "비상벨 한 번에 경찰 신고까지 된다는 것은 혼자 사는 여성에게 큰 안심거리가 될 수 있다. 여성 1인 가구에게 미포가 든든한 안심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심홈세트'는 비상벨을 달기면 경보음과 함께 마포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는 '휴대용 비상벨', 문 열림이 감지되면 문자를 통해 알림이 가는 '문열림센서', 외부에서 창문 여는 것을 막아주는 '창문잠금장치', 현관문 안전 고리인 '이중잠금장치'로 구성된다.

직장 생활 등으로 낮 시간대 미포구 가족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저녁 시간에 수령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용자에게 호응을 받았다.

실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별로 불안감 해소'에 대한 긍정 응답이 88.8%였으며, '위험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항목에서는 84%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구는 성폭력 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 물리적 안심 환경을 조성하는 '서울시 여성안심 마을 공모전'에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마포경찰서와의 협약으로 설치한 안심택배함을 비롯해 안심귀가 스카우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안심지킴이 사업 등 다양한 여성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아동 여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유공 포상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장관상을 수상해 여성안심도시로 인정받았다.

서정의 기자 seo@jeonmae.co.kr

## 이동진 도봉구청장, 공공청사 건설현장 점검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현장,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부지를 들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자 지난 13일 진행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시공인력들의 '안전'이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사를推进해 달라."며 담당 부서와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창1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지상6층 면적 1843.32m<sup>2</sup> 규모로 2022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1~지상6층, 면적 7406m<sup>2</sup>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은 창1동 주민센터 신축 현장,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부지를 들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에 따라 동절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자 지난 13일 진행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시공인력들의 '안전'이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사를推进해 달라."며 담당 부서와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창1동 주민센터는 지하1층~지상6층 면적 1843.32m<sup>2</sup> 규모로 2022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지하1~지상6층, 면적 7406m<sup>2</sup>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서정의 기자 seo@jeonmae.co.kr

## 영등포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도시미관 개선

## 영등포의 변화와 지역 명소 한눈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체현일)는 지역 내 신축 공사장 29곳의 가설울타리에 영등포의 변화된 모습과 지역 명소를 한 눈에 보여주는 디자인을 적용해 도시미관 개선과 구청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지난 2013년에 제작된 '영등포구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영등포의 이름난 곳', '영등포의 어제와 오늘'이 담긴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왔으나, 일관되지 못한 디자인 사고와 지역적 특색에 맞지 않는 이미지, 최근의 변화된 모습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다.

구는 새로운 가설울타리 디자인의 적용을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영등포의 다양한 매력과 가능성성을 홍보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통한 범위 예방과 광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 성동구, 용답역 철길 옹벽 '디자인월'로 변신…거리 활력

## '신촌, 파랑고래' 대학생 기자단 운영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신촌, 파랑고래' 대학생 기자단 4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기자단은 '신촌, 파랑고래'에서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과 신촌 일대의 문화예술, 청년, 도시재생 등에 대해 취재하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한다.

구는 서울에서 활동하거나 거주하는 대학교 재학생 및 후학생 가운데 도시재생과 청년·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고 영상·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흥미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기자단을 뽑는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내달 9일 까지 이메일(juh2ee@dm.go.kr)로 보내면 된다. 구는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영상PD 3명과 애디터 5명을 선발해 콘텐츠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관련 전문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여행강화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또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오는 12월 활동 종료 후에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임영찬 기자 limhc@jeonmae.co.kr

## 구정 이모저모

### '고전에서 인문학을 만나' 참여자 모집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17일부터 영화 인문학 강좌 '고전영화에서 인문학을 만나'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강의는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4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함께 만나 볼 영화는 ▲사랑은 비를 타고(1952년) ▲이창(1954년) ▲오즈의 마법사(1995년) ▲길(1954년) 등이다.

영화와 인문학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https://gsmediagangseo.seoul.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5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8000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홍보정책과(☎02-2600-7717)로 하면 된다.

### 저소득이웃 60가구 떡국 키트 나눔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 시흥3동 주민들이 새해를 맞이해 저소득 이웃 60가구에 떡국 키트 나눔을 실천했다.

떡국 키트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주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십시일반 모은 '한마음 마을기금'에서 사용했다.

시흥3동 주민들은 마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한마음 마을기금'을 조성해 마을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

한마음 마을기금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7월에도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선별진료소의 봉사와 관계자들에게 과일과 나눔으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 차세대 공예가 특별전 개최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 용산공예관(이태원로 274)이 새해를 맞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6인을 초청, 내달 27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선자(부채), 화예(전통신발), 유기(놋그릇), 퀸(옻색칠), 누비(비단, 소목)(나무 가구) 6개 분야 이수자들의 작품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참여 작가는 김대성(선자장), 황덕성(화예장), 김범우(유기장), 안소라(종장), 김은주(누비장), 김동규(소목장) 6인이다. 작품은 용산공예관 4층 다목적실에서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이 외에도 1층 전통공예품 판매장, 공예홍보관에서 시즌기획전 '옻, 색의 은도'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색감에 가능성까지 겸비해 예로부터 많이 사용돼 온 옻칠에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과 색감을 입힌 작품이 전시돼 있다.

### 유기동물 24시간 응급진료병원 운영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입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다.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입시보호도 지원할 계획이다.

응급진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중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공휴일과 야간에는 중랑구청 당직실로 전화하면 된다.

구는 응급진료 외에도 물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노원구, 대학생·주거취약 1인가구 '중개보수 반값' 지원

## 77개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손잡고 추진…보증금 1억 원 이하 임차계약 대상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대학생과 주거취약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 해부터 '중개보수 반값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해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등 주거취약 1인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1인 가구 중 대학생(학생증) 및 취약계층(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이다. 1억 원 이하 임차계약 중개보수 1/2를 감경(최대 15만 원)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77곳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대학가 주변 월계·공릉동 소재 중개사사무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공릉동 38곳 ▲월계동 25곳 ▲하계동 6곳 ▲상계동 5곳 ▲중계동 3곳이 참여한다.

중개사사무소 위치와 연락처는 구 홈페이지에서 '분야별정보·환경·도시·부동산·반값 중개보수 참여업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서울시 20세~30세 미만 청년 1인가구는 비중은 26.1%로, 전국 19.1%보다 7%나 높다.

구는 유군사관학교를 제외하고도 광운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등 6개 대학이 있다.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구는 참여 중개사사무소에 대해 재능기부 지정서를 부착하고, 실제 우수업소

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 및 행정처분 시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1인 가구 증가는 사회적인 주제이며, 사회적 변화에 맞춘 세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 강서구,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효과 연구

### '한국형 생애 초기 가정방문 중재 연구'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한국형 생애 초기 가정방문 중재 연구'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임산부, 영유아 대상 가정방문 프로그램인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아동의 건강발달과 엄마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약 4년간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 37주 이내 임산부는 강서구보건소에 방문 또는 전화(☎02-2600-5804)를 통해오는 1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가운데 위험도 평가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임산부는 무상으로 배정시스템을 이용해 월별의 확률로 중재군 혹은 대조군으로 나뉘게 된다.

중재군으로 배정된 임산부는 산전부터

출산 후 아동이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간호사의 지속적 가정방문 서비스와 함께 설문 및 관찰 평가를 받게 되며, 대조군은 동일 기간 동안 연구 평가에만 참여하게 된다.

중재군과 대조군 모두 평가에 대한 사례비로 상품권을 받게 되며 사업 참여 2년 종료 시점에 아동발달에 대한 면밀한 검사도 받게 된다.

연구 결과는 해당 사업의 전면 확대를 위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창복 기자 parkch@jeonmae.co.kr



이성수 성동구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 25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성동구의회제공)

## 성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25명 임용장 수여

### 32년 만의 의회 인사권 독립…승진·채용 인사권 부여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뤄 낸 인사권 독립에 따라 최근 의회사무국 직원 25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금까지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 인사권이 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른 것이다.

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시행(2022. 1. 13.) 준비를 위해 자치회 TF팀을 작년 9월부터 운영하며, 조

직체계와 인사관련 운영사항을 조례와 규칙으로 제·개정 하는 등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8일 성동구청과 지방의회 역할이 확대된다"며,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서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구의회 임용장을 받은 직원들은 안정적·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회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구민 중심의 자치의회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성수 의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분권 20시대에는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 역할이 확대된다"며,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변화하는 의정 환경에서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 광진구, 첫돌사진 촬영비 10만원 지원…서울시 최초

###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



김선감 광진구청장이 한여린이와 주먹인사포즈를 취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광진구제공)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감)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유실 및 유기동물들을 치료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입시보호를 위해 24시간 응급진료병원을 운영한다.

진료 항목은 ▲공통검사(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 ▲내과진료(진염질환, 경련 및 호흡곤란) ▲외과진료(교통사고, 교상 등 단, 골절치료 제외) 등이다. 필요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입시보호도 지원할 계획이다.

응급진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중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공휴일과 야간에는 중랑구청 당직실로 전화하면 된다.

구는 응급진료 외에도 물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 입양 지원, 펫티켓 교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감 광진구청장은 "초저출생 시대에

아기의 탄생은 지역사회에도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유아용품을 선착순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특히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 기자 leesw@jeonmae.co.kr

## 서울시의회, 독립적 인사권 운영 시행 선언

###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독립적 인사 조직 위한 인사위 구성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된 인사위원회 출범과 함께 시의회의 독립적 인사권 운영 선언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인사위원회 입기는 3년이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의회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인사 및 조직 운영방안과 관련해 법적 제재를 심의하는데 돌입하기로 했다.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자체적인 직원 임용·승진·징계 관련 사항의 승인 및 인사권 조례 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을 맡아, 시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게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를 통해 시의회 인사운영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민 시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민의원장을 높이고 실력을 갖춘 서울시의회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의 기자 seo@jeonmae.co.kr

## 종로구, 박노수미술관 특별 전시 '화가의 비망록'

### 박노수 회백과

### 파션 사진계 대표 작가의 만남

표하는 조선희 작가의 만남이어서 눈길을 끈다. 박 회백의 1988년 작품 '산'을

## 인천중구문화재단 워크숍

인천 중구는 지난 7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첫날을 내디딘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이 14일 한중문화관에서 워크숍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흥인성 구청장(중구문화재단 이사장)과 중구문화재단 나체훈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흥인성 구청장은 “일상 속에서 구민의 삶과 공동체가 연결되는 행복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구민과예술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예술가의 역량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창작환경과 문화예술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지역의 문화를 창조하는 하브로써 문화적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지역의 문화 동력 기관으로 성장하길 염원한다”고 당부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1월 자동차세 연납 내달 3일까지 신청접수

인천 계양구는 내달 3일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은 선납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 3, 6, 9월에 일괄 신고하고 남부 할 경우 연 세액 기준 각각 9.15%, 7.5%, 5%, 2.5%가 감면된다.

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계약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에 대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1월 2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직접 연납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에 방문하거나 전화(☎082-450-5251)로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직접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 원도심 노후 공원 환경개선 역대 최대 사업비 투입

인천 서구는 ‘원도심 노후 공원(녹지) 환경개선 사업비’를 역대 최대 규모인 75억 원 예산을 투입해 석남이 음습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 1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원도심 주민의 휴식공간 공원(녹지)시설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 많아 주민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에 원도심 일대 녹지 3만㎡를 포함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비 15억을 포함 총 30억 원을 집행해 구도심 주거 인접 지역에 숲을 조성하고 공정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탄소오염물질을 차단해 대기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구는 원도심 주민 건강에 일조하고 국가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는 스마트 애코 월손공원 정비사업을 비롯해 공원 5곳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공원 전체를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 설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인천 부평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설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위생점검은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유통기한 경과 및 무허가(무표지) 제품 사용,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법적 구비서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제시금식이나 떡류, 어육기공품, 두부류, 조미김 등 설 소비 식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 유통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관리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구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 설 명절 대비 수출입통관 24시간 체제 시행

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내달 4일 까지 3주간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은 우선 명절 성수품과 해외직구(직접 구입)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 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선도 유통이 필요한 제수 용품 및 농수축산물의 선 통관을 지원하고, 설 명절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해외직구 특송물품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 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세관은 중·소수출입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오는 28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 인천시 ‘전대미문’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한다

## 국비 공모사업 적극 참여…수요 발굴해 추가 예산 반영 검토 계획

일반건축물까지 지원 확대…태양광발전사업 통한 시민 소득 증대

인천시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전대미문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16일 민간·공공·산업,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를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지원 대상 및 예산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들의 태양광발전 수요를 발굴

해 가금과 추경 등에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계획은 미관유지 와 환경 보호를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확대를 꾀해되 임야 훼손과 자연경관을 해치는 사업은 제한,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 본래의 취지를 잘 살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5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

획, ‘신세계로’를 수립하고 수소·풍력·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해 온 시는 이번 전대미문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기하기로 했다.

민간영역의 경우, 태양광발전 지원 대상은 기관·단독·공동 주택에서 일반건축물 까지 전면 확대함으로써 종교시설과 아파트 경비실 등에도 태양광발전 설비를 원활히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영역은 시민이 공유재산을 사용(임대)해 태양광발전사업(햇빛발전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또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태양광발전 설치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적극 참여,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들에 소비량이 높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 확대 보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시민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책부시장이 최근 중구 영종에 위치한 인천MRO산업기반 영종엔진정비 클러스터 예정지를 현장 방문했다. <인천시 제공>

## 조택상 부시장, 영종엔진정비 클러스터 현장 방문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책부시장이 최근 중구 영종에 위치한 인천MRO산업기반 영종엔진정비 클러스터 예정지를 현장 방문했다.

방문은 지난 5일 시와 대한항공공과의 국내 항공정비산업(MRO)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본지 1월 6일자 8면 보도)에 따른 것으로, 조 부시장은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과 2025년 인천에 터 잡을 신규공장 부지,

대한항공 운항훈련센터를 차례로 찾았다.

조 부시장은 “대한항공의 3346억 원이라는 풍차·투자민관이나 MRO단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액수를 넘지 않아서 신기종 유치뿐만 아니라, 항공우주부야 인재양성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 지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시 지원의 운항훈련센터 방문은 처음”이라 “향후 공장건립 뿐만 아니라, 인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인 엔진정비 클러스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2025년까지 3346억 원을 투자, 영종국제도시에 항공기 엔진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인천시, 中企 금융비용 절감 돋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400억 투입  
이자차액보전·매출채권보험 등

인천시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과 혁신성장을 돋는다.

시는 코로나19 지속과 원부자재 가격 급등, 물류대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올해 1조 4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차액보전·매출채권보증·협약보증을 지원하고, 기계·공장 등 시설자금을 장기화 지원에 융자금 10억 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협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자차액보전·매출채권보증·협약보증을 지원하고, 기계·공장 등 시설자금을 장기화 지원에 융자금 10억 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협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은 9100억 원을, 외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부도 위험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상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에는 500억 원을,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

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과 저리 융자 지원에 4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응자지원 한도는 일반기업은 10억 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협약을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은 10억 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협약을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외유단기업 등에 지원하는 목적성 지원금은 최대 100억 원까지이며, 공장 확보 지원금은 30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응자지원 한도는 일반기업은 10억 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협약을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은 10억 원, 고용창출 및 수출기업과 협약을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이날 시 산업진흥과장은 “코로나19의 지속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은 신규사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건설업·무역업·관광업·전세버스운송업 등이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BizOK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 혁신센터로 문의(☎082-230-1621)하면 된다.

이날 시 산업진흥과장은 “코로나19의 지속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은 신규사업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 신년인터뷰 –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 “새로운 미추홀구, 올해 도약의 시기 맞이할 것”

## 신청사 건립·도시정비사업 등 계획

김정식(시작)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올해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의 해”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는 코로나19 종식될 것이라고 선언했고, 국내에도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와 새 출발이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추홀구 역시 올해 구청구호를 ‘2022년 새로운 미추홀구,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정했다”면서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의 시기임을 알리기 위해 예상 매출액에 대한 매출채권 보험료에는 500억 원을,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

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과 저리 융자 지원에 4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17일부터 2022년 미추홀구 행정관에 있어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17일부터 2022년 미추홀구 행정관에 있어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17일부터 2022년 미추홀구 행정관에 있어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17일부터 2022년 미추홀구 행정관에 있어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17일부터 2022년 미추홀구 행정관에 있어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17일부터 2022년 미추홀구 행정관에 있어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17일부터 2022년 미추홀구 행정관에 있어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17일부터 2022년 미추홀구 행정관에 있어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17일부터 2022년 미추홀구 행정관에 있어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17일부터 2022년 미추홀구 행정관에 있어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17일부터 2022년 미추홀구 행정관에 있어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17일부터 2022년 미추홀구 행정관에 있어 상당히 어렵고도 중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17일부터 2022년 미

## 본회의·상임위 원격영상회의 모의 운영

대전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내실있는 심사로 행정호흡을 냉지하고자 본회의와 상임위 원격영상회의를 모의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격영상회의는 정부형원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안건처리를 위한 질의응답 등 회의진행 상의 어려움이나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시민의 알권리 증 족에서 의회 영상증명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방송이 정상적으로 중계되는 것까지 면밀하게 확인했다.

관중순 의장은 “들 시민과 함께하는 의원들은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의회운영이 어려워지는 회의의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바이든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회 본면의 역할과 가능성을 치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미쳤다”고 말했다.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 울해 발주 물량 총 4122억 전망

GH는 최근 2022년도 공사의 총 발주물량이 총 4122 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사 발주금액은 3584억원, 용역 발주금액은 538억원이다.

주요 내역은 경기도서관 및 광장·보행률 건립공사 770억원, 약주원은남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527억원, 원당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공사 379억원,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290억원 등이다.

GH 안태준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측면과 함께 법령에 따라 지역재한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건설경쟁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 했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 임산부에 최대 48만원 어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

경기 성남시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간 1인당 최대 48만원(본인 부담 9만 6000원 포함) 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해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한다.

사업비 7억원(국비 3억5000만원, 도비 1억500만원, 시비 2억4500만원)이 투입돼 구마미 공급량 1824명분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했거나 현재 임신 상태인 사람이다.

영양 플러스 사업에 참여 중인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오는 26일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이영기자 leey@jeonmae.co.kr

## 고령운전자 인자선별검사를 무료 시행

경기 동두천시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시 필요한 인자선별검사를 무료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 경과일 이전에 기력력과 관찰능력 등 인지능력 진단을 위해 의무적으로 인자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관내 고령 운전자는 시 차체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인자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증 과정을 받을 때면 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 한글대학 백일장 선정작 522건 담은 작품집 발간

충남 논산시는 지난 해 한글대학 백일장을 통해 수상한 어르신들의 작품 522점을 담은 작품집을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어르신들이 전하는 따뜻한 감동과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어르신들이 책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보며 지금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백일장 작품집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해 바이든 한글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백일장 대회에서 시화14점, 그리기19점, 수필16점 등 총 522점이 선정됐으며 특히 최고령 어르신도 함께 참여해 “늦깍이 학생”으로서의 열정과 의지를 보이며 벅찬 감동을 전했다. 내달 말까지 작업을 추진한 뒤 1500부를 발행해 어르신 저자와 마을 등에 배부해 시민과 함께 감동을 나눌 예정이다.

논산/ 박석현기자 psh@jeonmae.co.kr

## 해양수산사업 내달 16일까지 접수

강원 고성군은 안정적인 어업경쟁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올해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내달 16일까지 접수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어업경영 안정과 어업인 경쟁력 향상 및 복지실현, 양식어업 및 기공 산업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올해 해양수산사업은 23개 사업에 39억 8000만원(보조금 28억 6084만원, 자부담 10억 1922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내지는 연안유지망 노후어선 디젤기관 대체지원, 생분해성어보급,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보급,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해면방식장 지원, 문어 연승장과 지원, 수산물 맞춤형 포장제 지원 등이다.

사업 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는 군 해양수산과와 해당 수협에서 접수하며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린 접고나 해양수산과로 문의 하면 된다.

고성/ 박승호기자 shpark@jeonmae.co.kr

## 김석환 홍성군수, 군민 건강·안전 행정 ‘착착’

내포신도시 체육시설·남장야구장 점검  
상시 선별진료소 현장 방문 직원 격려

김석환 충남 홍성군수가 최근 관내 새롭게 단장한 주요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군수는 먼저 홍복읍 내포신도시 내 조성된 디자인 운동장 등 체육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 나선 체육시설은 내포신도시 체육공원 3호 축구장 및 육상트랙과 근

립공원 11호의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으로 군이 5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11개가 시설물을 조성하는 내용의 양자 간 협약에 따라 완성됐다. 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무렵 본격 개방될 예정이다.

이어서 (구) 결성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돼 있던 인조 잔디를 남장 야구장으로 이전 설치한 남장 야구장 현장을 점검했다. 남장 야구장은 주중에는 중학생 야구클럽이, 주말에는 사회인 야구클럽이 각각 사용하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요람으로

기능해 왔는데 당초 흙 구장으로 조성되어 불규칙한 바운드로 인한 부상 위험과 우천 시 배수 문제 등 사용상의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이다.

이번에 설치는 (구) 결성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돼 있던 인조 잔디를 남장 야구장으로 이전 설치한 남장 야구장 현장을 점검했다. 남장 야구장은 주중에는 중학생 야구클럽이, 주말에는 사회인 야구클럽이 각각 사용하게 됐다. 한편, (구) 결성중학교는 새로운 야구장 조성 계획에 따라 군민을 위한 야구장으로 탈바꿈하고 오는 3월 착공을

시작해 9월 완공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새로운 체육시설 인수와 기

존 체육시설의 보강을 통해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시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와 신종 감염병 유병에 대비해 군민과 의료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됐다”면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체육시설과 선별진료소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총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충남 서산시의회는 시 소속에서 의회 소속으로 전환되는 공무원 18명, 서산시 파견 공무원 5명, 공무직 4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산시의회 제공>

## 서산시의회 인사권 독립 첫 임명장 27명 교부

## 시의회 전임 직원·파견·공무직 대상

충남 서산시의회가 최근 지방자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개원 32년만에 처음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이연희 의장과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인사권 독립 기념식을 갖고 시 소속에서의 의회 소속으로 전환되는 공무원 18명, 서산시 파견 공무원 5명, 공무직 4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행사는 임명장 교부, 명찰 수여, 기념사, 지방분권2.0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 연희 의장이 시무국 직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시의원들이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명찰을 직원의 원쪽 가슴에 직접 달아 주며 격려하는 순서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연초 시의 조작개편과 정원 증원으로 사무국 조직은 1국 3팀에서 1국 4팀으로 확

대되고 공무원 정원은 19명에서 24명으로 증원됐다. 공무직 정수 4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으로 전원을 수용하게 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정책지원관 3명 중 2명은 공식 채용 전 까지 서산시 파견 인원으로 배치하고 공석한 자리는 상반기 중 자체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연희 의장은 “의장으로서 첫 인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된다”며 “시의회 가족으로 새출발하는 27명의 직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 군포 산본신도시 리모델링 ‘잰걸음’

산본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출범  
18개 단지 구성 지역·자신가치 향상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 18개 단지로 구성된 산본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출범했다.

산본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는 최근 송죽다목적체육관에서 한대희 시장과 이학영 지역구 국회의원, 성복임 의장, 리모델링연합회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밝힌다.

산본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는 리모델링주체조합이 설립된 4개 단지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등 준비 단계의 14개 단지 등 모두 18개 단지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한 시장은 “산본신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됐음에도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리모델링연합회를 결성하게 됐다”고 리모델링연합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연합회는 산본신도시 발전을 이끌어가면서 지역의 가치와 주민의 자신가치 향상을 위해서 시와 협조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경기 지역 4개 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고 이후 단독 토론회를 개최하고 4개 시와 공동 토론회를 여는 등 1기 신도시 재생 공론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 금산군, 지난해 총 1423억 규모 76개 공모사업 선정

## 경기 회복·신성장 동력 확보 추진

충남 금산군은 지난해 중앙부처 및 충남 도 등 외부기관에서 76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42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2022년 농촌협약(402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250

억 원), 성공원 지방하천 정비(196억 원), 국립자연유원지 조성(163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75억 원), 인삼약초 소공인복합 지원센터 건립(50억 원) 등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공모사업에 도전해 지금까지 283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498억 원의 시설비를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각종 공모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협안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파악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 예산은 필수요건”이라며 “올해도 미선정된 공모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해 주자.”고 밝혔다.

금산/ 활성동기자 m0457@jeonmae.co.kr

## 안양시 공무원 ‘모바일 임용장’ 받는다

## 최대호 시장 “소속감·자금심 심어주는 계기 될 것”

경기 안양시는 전보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종이 임용장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대회의식 등 지정된 장소로 모이게 해 일정을 직접 수여하는 것에서 벗어나 해당 직원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URL을 확인, 개인 식별정보를 입력해 임용장 이미지를 내려 받는 방식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에 공직사회가 솔선하는 것은 물론 언제든 자신의 휴대폰에서 임용장을 확인할 수 있어 소속감과 자금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전보발령을 받은 5급 이하이다.

시는 최근 들어 전보발령자에게는 임

용장을 수여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부터는 거리두기 차원에서 6급 이하 승진자에 대해서도 임용장을 제작하지 않는 중이다.

시는 이와 아울러 6급 신임임용장과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메타버스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멀티액션 시대,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에 변화를 기울여 왔다.

최대호 시장은 “모바일 임용장이 공직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나아가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도시 담당 바이든 대통령과 서비스에서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안양시 모바일 임용장. <안양시 제공>

## 예비 신입생 대상 ‘3D프린터기능사 과정’ 운영

## 대전폴리텍대학 기계시스템과

대전폴리텍대학 기계시스템과는 내달 23 일까지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프리칼리지 프로그램 3D프린터기능사 과정 특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신임 박영길(사진)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이  
최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고 16일 밝혔다.

신임 박영길 순천국  
유림관리소장은 취임식  
를 통해 “소통하고 학  
습하는 조직문화를 구  
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원소 녹색성장을 선도  
하는 중심 관리소로 도약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전남동부 9개 시·군 3만6436㏊의 관  
할 국유림의 경영 활성화, 산림재해 예방에 종  
력을 다해 국민의 생명보호와 가치있는 산림  
순환경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영 목  
표를 밝혔다.

박영길 소장은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생물  
학 과정을 수료, 1991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  
해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서부지  
방산림청 정읍·보성·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  
경영과·영양과, 국립자연유산원·국립유산원·국립  
교육자유과,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을 거쳤다.  
호남취재본부/서길원기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경북 문경시는 별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의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따라 최근 주민설명회를 성  
황리에 개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손소독, 체온측  
정, 사회적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으며 하선 주민들과 사업 관련 관계자들이 참  
석해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민설명회를 가진 (구)별암고는 집중 호우 시 고랑  
유실위험과 하천 복堤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가 극히 우려되 지난 2010년 5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로 지정됐으며 170억 원을 투입하는 본 사업을 통해 재  
해위험 요인 예방과 주요 교통 이동경로 구축으로 주민  
통행에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에서는 호계면 별암리, 호계리 일원과 장동 일원  
에 통수단면 및 여유고 확보를 위한 고랑교, 보죽 등  
을 통해 자연재해에 저항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문경/ 안병권기자 ahn-bk@jeonmae.co.kr

## 1분기 군민 대상 정보화교육 실시

경남 의령군은 군민들의 정보화자료와 정보 이용 능  
력 향상을 위해 의령읍 종합사회복지관과 부림면 동부사  
회복지관 2곳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및 스마트폰 기초 문서 작성,

인터넷 활용, 직장인을 위한 약간 자격증 교육 등 6개 과

정으로 분기 내 진행될 예정이며 각 프로그램은 1~3주간

기초교육과 평균으로 1회에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다.

또한 주간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군민을 위해 약간

교육을 함께 주민에게 교육 수혜를 확대하고 각 교

육과정마다 인터넷 중복,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화역기

능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전9분과 오후9분은 의령읍 종합사회복지관 3층 정보

화교육장에서, 오후9분(14:00~16:00)은 부림면 동부사

회복지관 3층 정보화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추진

경북 경산시는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 전 및 연휴 중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민의 폐쇄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2022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15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설 연휴 전(19일~28일)에는 환경오  
염 취약지역·업소를 중심으로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며  
설 연휴(29일~내달 2일)에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시 환경과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염색·세탁 등 악성 폐수 배출업체,  
악취 다발업체, 먼지 등을 다량 배출하는 환경 배  
출업체 주변으로 시 환경과에서 설 연휴 전인 19일부터  
28일까지 중점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행위 등의  
불법행위 발견 시 즉각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  
고에 대해 주간에는 시 환경과 상황실, 야간에는 시 당  
직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산/ 변경호기자 byeon-kh@jeonmae.co.kr

## 시설물 전수 안전점검 27일까지

대구 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 관내 시설물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물 시공상태 및 현장관리  
실태, 안전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 현장 안전관리 실태,  
재난피해사고 방지 시 긴급점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  
전점검 등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과 보완  
요구,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은 임시 안전조치 이후 단계  
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배관식 구조물은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  
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선제 예방하기 위해 북구 관내 전  
시설물 현장점검으로 불의의 사고로부터 주민 생명을 지키  
고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신미경기자 shinmj@jeonmae.co.kr

## 군민 생활만족도 1위 ‘의령군’...향후 전망도 밝다

주택·기반시설 등 주거환경 만족도 전 분야서 경남도내 압도적 성과  
계속 정주 의사 2위...지역민으로서 자부심·만족감도 높게 나타나

경남 의령군민은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높고 향후 정주 의사와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 만족도가 18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향후 지역사회  
전망 역시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달 31일 ‘2021년 경남도 사회

복으로 나눠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의령군민들은 지역민으로  
서의 자부심과 향후 10년 이후 계속 의령에  
정주할 의사가 경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민으로서의 자부심은 거창군(77.9%)  
다음 의령군(77.6%)이고, 향후 10년 이후  
지역 정주 의사의 하동군(84.8%) 다음 의령  
군(82.3%)으로 조사됐다. 삶에 대한 만족감  
과 행복감 역시 각각 2위, 3위로 높게 나타

나 의령군민으로서의 생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주거환경 만족도 설문 분야인 주택  
시설, 산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주차장  
시설 각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의령군민의 주거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지역에 대한 자  
부심이 두 번째로 높다는 결과에 고무된 분  
위기다. 오태완 군수가 평소 강조한 의령군

민 자부심, 자존심, 자신감 이른바 ‘3자  
(자)’가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됐다.

오 군수는 “무엇보다 군민들의 행복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것이 가장 기본  
 좋은 일”이라며 “지표에 드러나는 수치에  
걸맞게 군민 삶에 우선하는 내실 있는 정책  
으로 더 행복한 의령을 만들겠다”는 포부  
를 밝혔다.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하석 순천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천제영 시무총장 등 관계자가 사례 첫 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순천시 제공>

## 허석 순천시장-김영록 전남지사,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 준비상황 점검

## 한반도 분화구 정원 협장 방문

전남 순천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전날 하석 순천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천제영 시무총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새해 첫 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  
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보고회는 행정기획·조성, 박람회장 운영,  
수의사업, 흥보 등 분야별 추진계획 및 상  
황을 점검하고 박람회 3대 키워드 콘텐츠 중  
하나인 ‘한반도 분화구 정원’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동천변 저수지공원에 2만㎡ 규모로 신설

되는 한반도 분화구정원은 백두산 천지와  
한반도 백두산 천지와 함께 향후 5년간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고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2023년 박람회  
호수정원을 뛰어넘는 2023정원박람회의 랜  
드마크가 될 정원으로 이달 초 착공해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석 시장은 “정원박람회가 2022~2023  
전남방문의 해 성공에 핵심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한반도 분화구정원은 정원  
박람회 랜드마크 시설인 민름 주변경관도 좋  
아니다”며 “수목 식재에 신경 쓰고 필요하

면 추가로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정원박람회 핵심 비즈니  
스 시설인 ‘순천만가든미래 박람회시설’에  
5억 원의 도비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2023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2022년 확보  
한 국·도비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시행사업  
168억 원과 순천시 지원사업 68억 원을 포함  
한국 236억 원에 이른다.

총사업비 407억 원을 투입하는 2023순천  
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순천국제정원을 비롯한  
순천시 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호남취재본부/이봉규기자

## 광주형 오미크론 차단 신속대응팀 달린다

감염병관리当局 등 5개팀 구성  
다중이용시설 등 집중 대응 박차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5개 분  
야 5개팀 25명으로 구성한다.

신속대응팀은 최근 집단감염이 벌어  
하고 있는 유행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장된다.

‘현장 신속대응팀’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 발생 시 텁별로 현장에 신속 출동해 기

초·심증 역학조사, 환자분류, 동선분리 등 초기 대응하고 현장 감염요인을 차단하게 된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이 최대 위기상황이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시 “시·구·구청, 감염병관리처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충족하고 면밀한 초기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김성호기자

## 함안군 “전입가구 주택수리비 지원받으세요”

빈집 활용도 상승·인구 유입 도모  
5000만원 투입 동당 최대 500만원

가구의 가구주가 해당되며 빈집을 매입 또는  
3년 이상 임대해 수리비를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주소지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 혜택자는 도장, 산분증, 전입확인서  
등 12종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 16일 김영원 행정기획·조성국장은 군  
의회에서 “본 사업이 군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전입 임대료를 감면해 줍니다.”  
며 “이번 사업은 주택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활용해 주민 수익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군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고 전입 임대료를 감면해 줍니다.”  
며 “이번 사업은 주택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활용해 주민 수익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함안/ 김정도기자 jd2009@jeonmae.co.kr

## 장흥군-원광대학교 상호교류 맞손...특별혜택 눈길

## 원광대 산하 병원 진료비 15% 감면

를 이용한 건강검진 시 본인부담금의 15%를  
할인받는다. 또 원광대학교·원광대학원·원광

교수·원광대학원·원광대학원·원광대학원·원광

대학원·원광대학원·원광대학원·원광대학원·원광

# 의정부시, 민원서비스 돋보인다

종합평가서 2년연속 최우수 선정  
지역상황 맞는 개선안 적극 발굴

경기 의정부시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획득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증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자체단체(17), 기초자체단체(226)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관리기반, 민원행정활동, 민원처리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운영, 국민신문과 민원처리, 고충민

원처리, 민원마족도)에 따라 민원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실적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 기관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해 합동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고객중심 및 현장중심의 다양한 민원행정 사업추진으로 타 기관과 차별화된 민원사항을 추진해 지역 상황에 맞는 민원제도 개선안을 적극 발굴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더구나 전국 최초 민원대기현황 알림서비스 운영은 14개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민원실의 민원대기 상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제공해 민원 편의 증진 및 행정서비스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취약계층 배려청구, 장애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한국서부발전은 최근 경남 진주시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세라믹기술원과 '탄소중립 수소발전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서부발전 제공>

## 서부발전-세라믹기술원, 수소발전 '맞손'

탄소중립 실현 발전기술 구현 박차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 기술개발도

한국서부발전은 최근 경남 진주시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세라믹기술원과 '탄소중립 수소발전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수소 혼소 및 전소 가스터빈 용 열차폐 세라믹 코팅분말 개발과 고체산화물 수전해설비의 핵심 부품 국산화 등 다

양한 기술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수소비율을 높여 결국에는 100% 수소로만 연소되는 발전기술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열차폐 코팅기술이다. 기존 LNG 가스터빈과 달리 수소수소용은 연소온도가 매우 높고 연소 후 발생되는 기체특성도 다르다. 이 때문에 고온에 노출되는 연소기, 가스터빈 날개 등 주요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코팅소재 개발이 요구된다.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또 서부발전은 세라믹기술원과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고체산화물을 수전해설비 기술개발도 협력한다. 독일과 일본 등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SOEC 셀 기술을 국산화해 국가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혁신 수소 기술이 개발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 평택시, 1인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 시동 걸었다

한국전력공사·SK텔레콤과 업무협약 체결  
복지시민지대 200명 선정 3개월 시범 운영

경기 평택시는 1인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근 시정 대외협력실에서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과 박데이터 기반 사내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내용은 한전과 SK텔레콤이 보유한 전력과 통신 분야의 데이터 및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시에 가족관계 단절 및 실직 등에 놓인 1인가구 중장년층의 안부 상황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전력과 이동통신의 폐단 분석으로 일상적인 생활에 더 유익 과정에 이상 징후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위급상황 여부를 감지해 음성통화 사내복지 담당자에게 알림 송신 및 대응 체계를 갖춤으로써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한다.

시는 우선 복지시민지대 2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해 3개월간 시범 사용기간을 가짐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는 1인가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근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평택시 제공>

정장선 시장은 "1인가구 인부살핌 서비스를 통해 홀로 삶을 마감하는 중장년층이 없도록 혁신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축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노인인권존중 실천 인정받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상 수상

경기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신하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한 2021년 노인인권존중 실천 경진대회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상을 수상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는 휴머니튜드 혁명(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 실천 사례로 '어르신이 날마다 행복하게 즐거운 생활 제공'을 위한 케어만리를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입소자의 우울감과 고독감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 방지를 위해 개별화된 관리를 통해 평안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센타는 외부와 단절된 입소 어르신들의 고립된 생활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 및 신체기능 저하 문제 등을 관리해 휴머니튜드 혁명에 기반을 두고 정기적인 개인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 스포츠활동, 찾아가는 물리치료서비스를

에 노력하면서 종사자에 대한 심리적 도움과 복리후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원장 수인아님은 "맞춤형 경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는 어르신 중심의 요양시설로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 정선군, 치매관리 원스톱 서비스 강화...맞춤형 관리 제공

경원 정선군은 치매 진단부터 환자 등록 및 관리까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치매 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치매국가인재제에 발맞춰 군 거주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3단계(선행검진→진단 검진→간접검진)의 무료검진을 시행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될 계획이다.

모든 검진과정은 치매안전센터에서 원스톱

으로 이뤄져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매진단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로 진단받는 경우 치매관리대상자로 등록돼 치매치료관리 지원, 인식표 보급, 조교 물품 지원, 인지증진교실, 치매가족모임 등 펼쳐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애정 소장은 "대상자 중심의 원스톱 치매 관리는 치매 위험군과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jeonmae.co.kr

## 강원교육청, 교직원 관사현황 전수조사한다

###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사기진작 디딤돌"

강원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교직원 관사 개선을 위해 총 3644가구 관사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주거 안정과 민족도를 형성시키기 위해 관사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개선이 누락된 관사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감 민선 3기 일부터 2018년 624가구, 2019년 427가구, 2020년 390가구, 2021년 482가구 등 교직원 관사 1903가구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를 추진해 벽지 근무 교직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왔다.

그럼에도 강원지역 특성상 벽지가 많아 일부 지역에서는 관사가 부족하고 시설이 낙후돼 교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방법은 인증전행모락모락마을 이미지를 본인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 게시, 해시태그 후 네이버폼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고 20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일에 이뤄질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증전행모락모락마을은 인증전행을 테마로 체험, 전시, 흥보 기능이 복합된 문화공간으로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충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 인증전행모락모락마을 홍보 이벤트

강원 횡성군은 지역 8대 명품 중 하나인 안흥전행을 주제로 한 '인증전행모락모락마을'의 개관을 앞두고 소문내기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방법은 인증전행모락모락마을 이미지를 본인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 게시, 해시태그 후 네이버폼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고 200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1일에 이뤄질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증전행모락모락마을은 인증전행을 테마로 체험, 전시, 흥보 기능이 복합된 문화공간으로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충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 공연예술 상설화 추진

강원 충천 곳곳에서 올해 700회의 공연이 열려진다.

시는 사업비 24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문화가 일상이 되는 공연예술 상설화를 추진한다. 문화예술의 일상화, 대중화를 통해 문화도시 이 미지를 크게 높이고 16일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대표 상설공연인 인형극이 매주 주말, 연극은 매주 목요일, 미술은 매주 수요일 시민을 찾아간다.

이어 버스킹 공연이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조각공원, 석사천 산책로 등에서 펼쳐진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회관과 뮤지컬장에서는 기획 공연이, 공연을 접하기 힘든 문화소의 지역에는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가 진행된다.

충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강원 속초시는 설을 맞아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연계해 시 자체단속을 펼친다. 17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성수품인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 수요일 시민을 찾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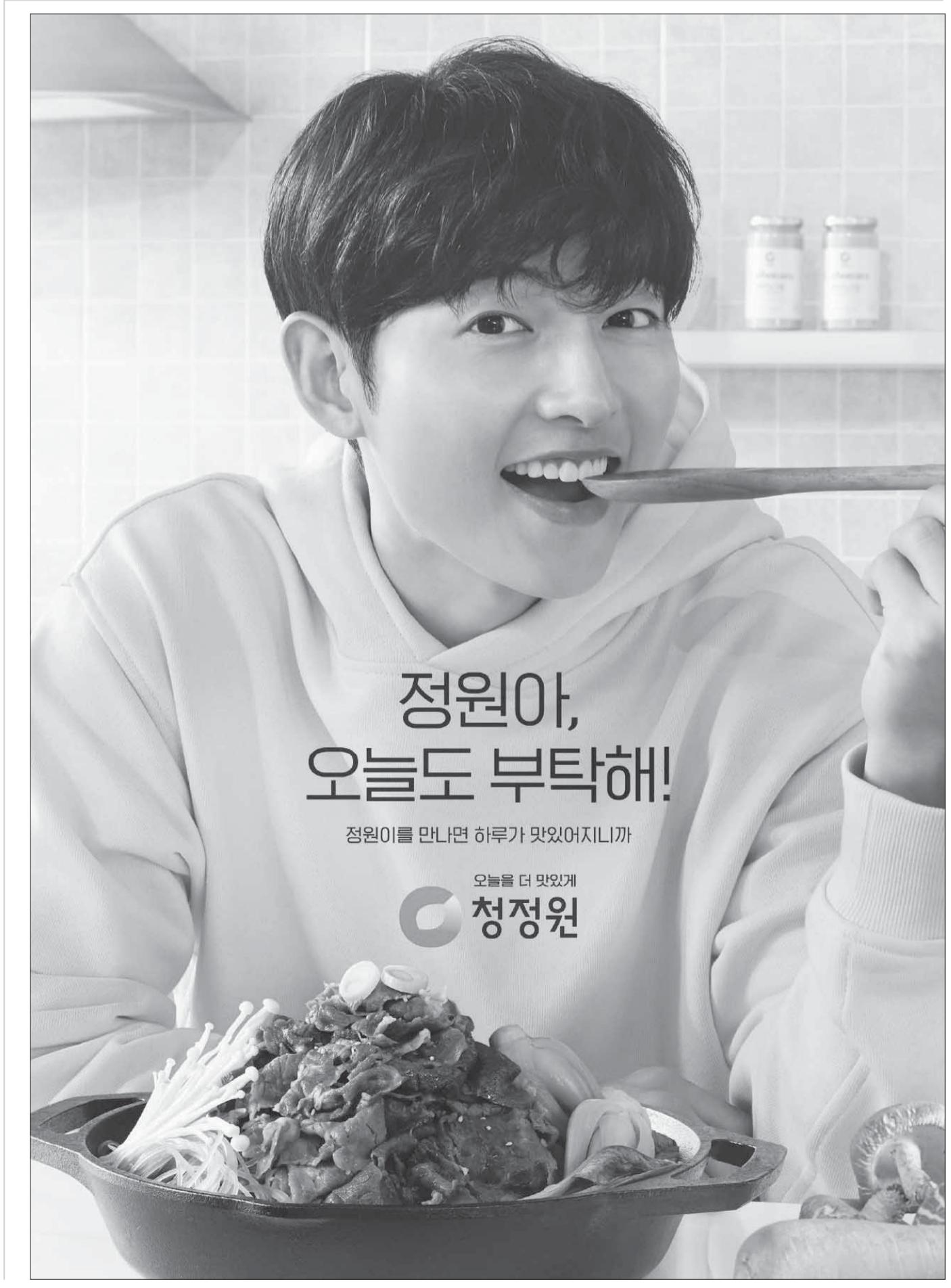
특히 4단계부터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먹거리로 확보하기 위해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기반조성사업과 행정부마을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1년 단위로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4단계부터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먹거리로 확보하기 위해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시군의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성수품인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 수요일 시민을 찾아간다.

충천/ 윤현기자 youn@jeonmae.co.kr

속초/ 윤현기자 youn@jeonmae.co.kr







## 동정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은 17일 오후 2시 삼대황 실내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에 참석.



확대간부회의 주재  
최영조 경북 경산시장은 17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주요업무 보고회 주재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는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주재한다.



간부회의 참석  
오대창 경북 영양군수는 17일 오전 8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간부회의에 참석.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식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17일 오후 2시 군청에서 열리는 2022년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식에 참석.



간부회의 주재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는 17일 오전 8시 30분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미을회관 준공식  
김동곤 충남 청양군수는 17일 오전 11시 비봉면 신원1리에서 열리는 미을회관 준공식에 참석.



정학금 전달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는 17일 오전 9시 30분 집무실에서 송천미을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정학금을 전달받는다.



하은서씨, 영양사 국가고시 고득점 합격  
계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가 최근 치러진 영양사 국가고시에서 고득점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합격의 주인공은 지난해 2월 식품영양조리학부를 졸업한 하은서(22·사진)씨로 최근 발표된 제45회 영양사 국가고시 결과에서 220점 만점에 213점으로 합격했다. 하이는 수석 학생자 접수인 215점과는 불과 2점 차인 고득점으로 당당히 학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영양사 국가고시 한 달 전부터 하이에게 8~9시간 공부에 매진했다는 하이는 “여러 권의 책을 알게 공부하기보다 한 권의 책을 보더라도 완벽히 이해하고 내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자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한 것이 주요했다”며 고득점의 비법을 전했다.

대구/ 신미정기자 shinmj@jeonma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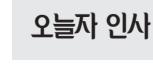


김포한강신도시 양산과 신설 논의  
이기형 경기도의원(더민주·김포4·교육기획위원회·사진)은 최근 (가칭) 양산고등학교 설립추진 주민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협의체는 중학생 출입자 수 대비 고등학교 수용률이 매우 낮은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구래-마산동’ 지역의 고등학교 1곳 추가 신설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출입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60%에 머물고 있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이 많아 교육환경 저하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오늘자 인사 및 부고는 흠파에 게재됩니다

# 김만진 대표 “농가소득 증대 최선 다할터”

순천 낙안배, 농림축산검역본부 ‘배수출 최우수상’ 수상

## 포토뉴스



보령시 대전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6일 정성듬뿍 시장 가득 밀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권정선 경기도의원, 부천혜림원서 감사패 전달  
권정선 경기도의원(더민주·부천5)이 최근 부천시의회에서 자치장애인 거주·자립 지원 전문기관인 부천혜림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한영민기자 han-YM@jeonmae.co.kr



들이 빨갛게 물들어 수출을 통한 활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수입 상대국이 하용한 약제만 사용, 재배해야 하고 코로나로 인해 경작마저 까다로운데 불구하고 여러 난제를 풀고 수출길을 열어 약 80t의 배를 대만에 수출했다.

조합원들은 앞으로 더욱 뛰어난 고품질 낙안배를 생산, 한국산 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올해에는 동남아 쪽으로 150여t의 배를 수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대전농장 대표 김준남

여주축협, 하나로마트 2년 연속 매출 300억대 눈길

조창준 조합장·지귀정 마트점장 손발 척척 ‘경영 혁신’



마트내 전경. 왼쪽부터 조창준 조합장·지귀정 점장.

로 인한 고객 불만도 거의 사라지면서 고객들로부터 신뢰가 쌓이며 매출 증대의 흐름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조창준 조합장은 “자본금 증자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사업과 연수직으로 이어져 시장을 위한 공의 실현과 수의창출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점장은 소비자유동 및 경제사업 분야의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점장으로 여주축협 하나로마트에 부임하면서 축협 하나로마트가 자리적이나 주차시설 등 일자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과 경영 쇄신을 통한 성장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즉각 경영 쇄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점장은 “마트 방송고객들의 구매상품 및 전화 주문 상품 배송 관련 기준 수직업 위주 방식에서 농협 물류가 자체 개발한 ‘고객일립서비스’를 통한 빠른배송 시스템 전환으로 전격 도입해 상품 주문, 배송,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실시간 고객에게 알려주면서 고객들의 배송 관련 문의 전화가 대폭 감소하고 또한 미배송과 오류 배송으

로 인한 고객 불만도 거의 사라지면서 고객들로부터 신뢰가 쌓이며 매출 증대의 흐름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실적도 2020년에 비해 전체 매출 및 순이익 등에서 더 좋은 실적으로 나타나 올해 축협 운영에서 조합원 복지 및 교육사업에 대폭 증액지원과 전 조합원 생일 축하 기념 등 조합원들의 실직적인 실의과 복지 증대와 함께 여주축협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영 기틀을 다지는 한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 의령군신임조합,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경남 의령군은 최근 군산립조합에서 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령/ 최핀균기자 chpag@jeonmae.co.kr



이용욱·안명규 파주시의원, 도시재생 의정대상 수상

경기 파주시의회는 이용욱, 안명규 의원이 최근 열린 표창 수여식에서 도시재생협치포럼과 도시재생활동네트워크로부터 각각 ‘도시재생 의정대상’과 ‘도시재생활성화 최우수 의정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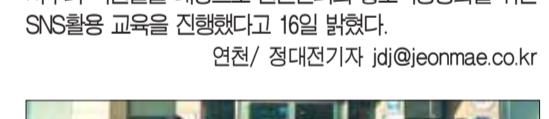
파주/ 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이용욱·안명규 파주시의원, 도시재생 의정대상 수상

경기 파주시의회는 이용욱, 안명규 의원이 최근 열린 표창 수여식에서 도시재생협치포럼과 도시재생활동네트워크로부터 각각 ‘도시재생 의정대상’과 ‘도시재생활성화 최우수 의정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주/ 임정일기자 imci@jeonmae.co.kr



연천군의회, 홍보역량강화 SNS 교육 실시

경기 연천군의회는 최근 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 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천군의회 홍보역량강화를 위한 SNS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천/ 정대전기자 jd@jeonmae.co.kr



평택시 비전2동 자율방재단, 관내 집중방역 활동

경기 평택시 비전2동 자율방재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공원 및 버스승강장 등 디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방역활동을 실시했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포천시의회, 인사권 독립 임용장 16명에 교부

경기 포천시의회는 최근 의회사무과 직원 16명에게 임용장을 교부했다.

포천/ 신원기자 shing@jeonmae.co.kr



금산인삼농협, 이웃사랑 연탄 1000장 기탁

충남 금산인삼농협은 최근 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쌓았던 80만 원 상당의 연탄 1000장을 기탁했다.

금산/ 황선동기자 m04570@jeonmae.co.kr

올해 동남아 150여t 수출 계획

들이 빨갛게 물들어 수출을 통한 활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조합은 지난해 수입 상대국이 하용한 약제만 사용, 재배해야 하고 코로나로 인해 경작마저 까다로운데 불구하고 여러 난제를 풀고 수출길을 열어 약 80t의 배를 대만에 수출했다.

조합원들은 앞으로 더욱 뛰어난 고품질 낙안배를 생산, 한국산 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올해에는 동남아 쪽으로 150여t의 배를 수출할 계획이다.

호남축재본부 이봉규기자

박남수 경기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수익사업 통해 자립도 높여나갈 것”

처장단 인사 단행·성과평가 시스템도 구축

을 통한 공사위상을 제고하고 공공성과 수의성이 조화될 수 있는 도시개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박 사장은 “1년여 동안 지자체부문에서 경인인 지역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달여만에 완료했다”며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직접 일장 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금 증자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사업에 연수직으로 이어져 시장을 위한 공의 실현과 수의창출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33년간 공사생활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흥국은행장으로서 1년여 동안 지자체부문에서 경인인 지역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한 달여만에 완료했다”며 “개발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직접 일장 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본금 증자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사업에 연수직으로 이어져 시장을 위한 공의 실현과 수의창출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점장은 소비자유동 및 경제사업 분야의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점장으로 여주축협 하나로마트에 부임하면서 축협 하나로마트가 자리적이나 주차시설 등 일자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과 경영 쇄신을 통한 성장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즉각 경영 쇄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점장은 “마트 방송고객들의 구매상품 및 전화 주문 상품 배송 관련 기준 수직업 위주 방식에서 농협 물류가 자체 개발한 ‘고객일립서비스’를 통한 빠른배송 시스템 전환으로 전격 도입해 상품 주문, 배송,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실시간 고객에게 알려주면서 고객들의 배송 관련 문의 전화가 대폭 감소하고 또한 미배송과 오류 배송으

로 인한 고객 불만도 거의 사라지면서 고객들로부터 신뢰가 쌓이며 매출 증대의 흐름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실적도 2020년에 비해 전체 매출 및 순이익 등에서 더 좋은 실적으로 나타나 올해 축협 운영에서 조합원 복지 및 교육사업에 대폭 증액지원과 전 조합원 생일 축하 기념 등 조합원들의 실직적인 실의과 복지 증대와 함께 여주축협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영 기틀을 다지는 한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만성콩팥병-지방간 동반시 허혈성 심장질환 위험 증가”

용인세브란스 정동혁 교수 “조기 발견 어려워 일상 속 관리 필요”



원족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기정의학과 정동혁, 박병진, 이성범 교수.

만성콩팥병도 지방간과 동반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대폭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만성콩팥병과 지방간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면서 동시에 별발할 가능성이 높아 건강 관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 교수는 “만성콩팥병과 지방간 모두 조기 발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저암시, 운동, 영양 그리고 적절한 수분 섭취를 통해 일상 속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건강검진을 통하여 단백뇨 및 신장 수치 확인과 간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관련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의 기업들이 설명절을 맞아 성금과 현물 기탁





**전국매일신문배  
코리아오픈  
하프파이프대회**

**2022. 02. 17 / 목요일**  
**휘닉스평창 하프파이프**

**대회종목 | 하프파이프 스キー & 스노보드**  
**참가대상 | 초등학생 이상 모든 스��어 및 보더**  
**시상부문 | 초등부(남/여 1~2학년부, 3~4학년부, 5~6학년부), 중고등부(남/여), 대학일반부(남/여)**

주최 전국매일신문 | 주관 PUNCH YOUNG | 제이코리아 | 후원 JUMP PARK | 문의 1588-5762